

<2013년 7월 5일 금요 진성운 선생님 명강의>

<2005년 10월 30일 주일말씀>

1.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2. 서로 기쁘게 하며 살라

본문: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65장 23-25절

〈이사야 56: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 65:23-25〉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섭리 뛰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늦가을에 접어들었지요? 월동 준비하고 겨울 준비하느라 계절적으로도 바쁜 때입니다. 섭리사는 더 바쁩니다. 섭리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생명들을 거둬들이자” 해서 이런 바쁜 계절입니다. 세계 각 나라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면 나도 바쁩니다. 요즘은 굉장히 바쁩니다. 어제 토요일 밤에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늦도록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6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어지러워서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오든지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거두고 함이 우리 삶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먼저 새로 온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몇 마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고, 수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꼭 새로운 사람들이 오도록 하자. 멀리 있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부모 형제들을 오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형제들만 다 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형제들을 전도하고 부모 전도하고, 그리고 이웃 전도하고 자기 민족 전도하고, 다 됐으면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자.” 했습니다. 물론 다 전할 때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먼저 나와서 세계복음에 손을 대서 계속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처음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럴 것입니다. 옆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의식은 쉽지 않습니까. 모두 평소에 보던 의식들이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나 유초등부 시절 때에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쉬운 방법들입니다. 오늘 안내도 하고 말씀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상호 존재 세계를 여러분은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는 초면이고 구면이고 간에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면은 첫 번째 만난 것이고, 구면은 두 번째 만난 것입니다. 나는 구면과 초면을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오랜 나이를 먹을 때까지 구분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새로운 사람들, 초면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 오신 여러분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째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본인 스스로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모두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전체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악단들이 노래 앞에 선두지휘를 하면 여러분은 따라 노래를 하시고, 나는 여기에서 지휘봉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휘를 해줄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말씀 중에 빛나는 주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도 다시 한번”입니다. 첫 번째 노래가 잘 불러졌으면 두 번째 노래로 바로 갈 것이고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제목을 불러줬습니다. “말씀 중에 빛나는 주님”은 9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다시 한 번” 이 노래는 두 번째 제창곡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노래도 3절까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 시대의 말씀에 의해서 개사를 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각 악기를 든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나서 먼저 악기를 잡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휘단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 말씀 중에 빛나는 주님 1, 2, 3절

♪ 사랑도 다시 한 번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줄지도 말고, 그리고 옆 사람과 큰소리로 대화하지 마시고, 마음은 헛된 곳에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탄 데 두고 있는가를 잘 보십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은 너무 잘 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본문말씀을 전해놓고 찬양하는데 신입생들 환영 이야기하다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한 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두 번째는 이사야 6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

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 두 군대의 성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주제에만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주제를 주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를 준다면 “**서로 기쁘게 하며 살라.** 서로 기쁘게 해주며 살라. 서로 해를 주며 살지 말고 서로 기쁘게 하며 살라. 하나만 기쁘게 해도 안 되고 서로 서로 기쁘게 하며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쁘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온 세계의 시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금주의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늘 설교 가운데 들은 본문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매 나로 오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며 깨우쳐주며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나갈 때 보면 결국 이익주의, 이권주의, 유익주의, 얻으려 하는 세계 아닙니까. 자기의 수고를 자기가 했어도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고 다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며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화관에도 가고, 산과 들로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이웃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과 이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을 보기 위해서도 가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워서 못 견뎌서 옷을 사 입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극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입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상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에 있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이고 동일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쁨을 얻기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잘 들리지요? 처음에는 서서히 제가 이야기하

고, 가다보면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톤이 바뀌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직접 통변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늘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깨달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해준 것인데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줬으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어 배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했을 때 ‘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줬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싶어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도 돌리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인생문제도 묻고 싶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한다면 어떤 점쟁이가 따라갈 수 있고 어떤 지도자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 자기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가 없을 때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저차원적인 세계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요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말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까지만 하면 말씀이 딱 끊어지니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게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전장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오늘도 이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백성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들을 기쁘게 해주리라.”

아까 서론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서로 기쁨을 얻기 원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기쁨도 얻어 보고 여러 세계로부터 기쁨도

언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허무하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잘 지냈는데 마지막 가서는 “허무하다.” 합니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즐겁게 지내고, 진수성찬을 먹고살고, 그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인생이 허무하다.” 합니다.

왜? 죽으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죽으니까 허무하다고 합니다. 안 죽고 계속 살면 허무하다는 소리를 안 할 것인데 죽습니다. 죽으니까 허무하다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이 늙으니까 허무하다 합니다. 인생이 홍안소년으로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죽게 되니까 허무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허무한 것을 못 느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인생이 허무하지 않니?” 하고 물어보면 “허무가 뭐예요? 왜 허무해요? 너무 좋은데.”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인생이 허무하냐고 물어보면 허무하다는 소리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조금 먹으면 허무함을 느낀다도 합니다.

인생을 논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나는 종교의 근본 철학자이지만 이것저것 인생을 연구하고 아니까 인생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연륜이 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인생의 삶을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부귀 영화가 허무하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 깨닫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고 허무한 것을 느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젊은 사람의 세계에서는 못 배웁니다. 나이 먹고 죽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 허무한 것을 느낍니다. ‘인생이 허무하구나! 살았다고 할 것이 없구나. 금방 죽는구나.’ 하게 됩니다. 어제 봤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아까 지나가다 본 사람이 차 사고가 나서 금방 죽었다고 했을 때 ‘인생 살았다 할 것이 없구나. 언제 죽는지 모르겠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자기 죽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젊어서는 안 죽겠지. 병들어서 죽으려면 그래도 70살은 넘어가겠지. 50살은 넘어가서 죽겠지.’ 이 정도는 알 것입니다. 확실히 몇 년도에

죽는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은 신이 정해놓았다고도 볼 수 있고, 안 정해놓았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너 죽으라 하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곡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곡식도 크면 죽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기간이 즐거워하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완성되었을 때는 곡식으로서 죽는 날입니다. 사람은 완성기를 40대로 봅니다. 육적인 완성기는 20대로 봅니다. 20살 먹으면 “사람 다 컸다. 이제 결혼하고 산다.”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완성을 볼 때는 한 40대로 봅니다. 한국에서 따질 때 그렇습니다. 세계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는 육신이 그런 성장기 기간을 거쳐보기도 했고, 정신적인 성장기 기간도 지났습니다. 정신세계도 컸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기간도 지나갔습니다. 20대도 지나가고 40대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세계보다 영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가서 성장한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무조건 다 잘 들어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끝내주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계속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구나.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 말고 50여명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나이 먹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등을 보았는데 한 50여 집의 초상집을 찾아다니며 그 시체를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시체를 뽕뽕 묶어 관속에 넣고 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영원히 육신이 안 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허무함을 느끼고 ‘아, 나도 저렇게 어느 날 죽어서 뽕뽕 묶여서 저렇게 묻히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도 저렇게 죽는다. 죽으면 산 사람들이 뽕뽕 묶어 관에 넣어서 땅에 묻는다. 그러면 썩는 거야. 이 육신은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죽기 전에 열심히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 그만 다녀라.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귀하게 또 쓰자.” 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시체도 묶어주고, 구질구질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묘에 묻었다가 묘 자리가 안 좋다고 그 시체를 파다가 다른 데에 옮길 때에도 쫓아다니면서 그 뼈를 들어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이 귀한 손을 귀하게 쓰자. 좋게 쓰자. 다르게 쓰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 죽은 데에 가서 시체 묶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 감동을 받기는 받을지라도 실감은 덜할 것입니다. 사람 죽은 것을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반절 정도는 봤다고 보고, 못 본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이 죽는 것을 보는 것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는 것, 자기 부인이 죽는 것, 남편이 죽는 것, 형제가 죽는 것을 직접 보면 또 다릅니다. 그럴 때는 마치 가슴에 천둥번개를 친 것 같은 큰 쇼크를 받게 됩니다. 내가 느낀 것을 볼 때 ‘아, 이제 다시 못 보는구나.’ 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못 보는구나. 다시 영원히 못 보는구나. 그 육신은 못 보는구나.’ 했을 때 그 때는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탁 막히고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를 잡수실 만큼 잡수시고 거의 90세 가까이 사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못 보는구나’ 할 때는 숨이 안 쉬어지고 눈물만 철철 흘렸습니다.

요즘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뭐했다 하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내가 부모가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멋쟁이 부모가 있지 않느냐. 부모가 돌아가신 자에게 내가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버지가 챙기듯이 챙겨줄 테니까 나에게 무엇을 챙겨달라고 하라. 이야기하면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빚을 내서라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가 있어서 안되겠다.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시지? 우리 아빠 언제 돌아가시지?” 그렇게 할까봐 겁납니다.

“부모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는 나를 통해서 천주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나도 같이 원하니까 같이 행하는 입장이다.”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불러다가 너희를 기쁘게 해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나를 보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민족,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늘 기쁘게 한 일이 성경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로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못하는데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기쁘게 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명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조가 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도 기쁘게 해주지만 고통받는 것을 고통받지 해주고, 또 영원히 기쁘게 해주려면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천국 가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해줘야 되니까 너무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히 기쁘게 해줘야 기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살다가 죽으니까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영원히 기쁘게 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참된 길을 찾고, 이상주의를 찾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에텐의 세계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지상천국의 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하는 것은 하기는 하는데 허무로 끝나고 맙니다. 육적 세계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일, 기생집, 나아가서는 사랑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치의 야망의 세계, 명예의 세계, 권리의 세계, 환경이 좋은 세계, 이지 가지 모든 기쁨을 누리는 세계가 많지만 결국은 인생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절대적으로 살 때, 메시아를 중심해서 살 때 거기에는 기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허무치 않고 그 세계는 육신의 세계도 천국이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만이 절대적인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 바쁘고, 삶에 쫓기고, 삶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선 먹는 것이 천국이다. 입는 게 천국이다. 잘 사는 게 천국이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천국이라고 시인을 못합니다. 부자인데도 천국생활을 못합니다. 옷을 있는 대로 다 입고 좋은 옷을 입는데도 천국 생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천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축복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해도 자기의 절대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야 기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야, 그리고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있어야 기쁨이 일어나고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영원히 존재할 때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속 사람 영이 육신과 같이 기본으로 닮아 있는데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때 정신적 사랑, 육적인 사랑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하늘의 말씀, 나로 외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기쁘게 해주시는데 기쁘게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수천 수만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기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을 행해야 기쁘게 해놓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기쁘게 해놓았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해하고 때리고 탈취하는 사람은 기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이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들은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빼앗아 먹고 잡아먹고 하면서 나름대로 좋아하며 삽니다. 잡아먹힌 놈은 슬프고 원통할 것이고, 잡아먹은 놈은 좋다 하며 배를 두드리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같이 짓지 않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고 해하고 탈취하고 괴롭게 하면 짐승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 행위대로 천 배, 만 배, 십억만 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얼른 하면 덜 받습니다. 안 받기도 하고, 그 동안 죄지은 것에 대한 것만 탕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할 때 나무 밑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며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사신우상들한테 빌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빌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빌지 않고 다른 세계에 빌고, 다른 세계에 행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

구든지 다 받습니다. 불교? 그것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잘못된 대신 이런 것을 해서 잘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구상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자가 뭘 해놓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터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해놓았습니다. 그들보다 능력이 100배, 1000배 있으니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쓰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쓰게 하든지 쫓아내게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이 나보다 천 배, 만 배, 십억, 백 조, 만 조, 억 조 능력이 있으니까 지구상에 만들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능력 받고 힘을 받고 명령받고 조그만 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서 무엇을 만들어놓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고마워해야 우리가 그런 삶의 이상세계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돕고 어려울 때 살피십니다. 봐두면 죽습니다. 봐두면 그날 꼭 죽습니다. 부모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애인도 그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내가 월남에 있을 때였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을 때 우군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도 그들을 지켜주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월남에 보내면서 “가서 잘 싸우고 오라. 내가 도울 것 다 도와줄 테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적이 있는 우리를 겨누는 장소까지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대통령이 어려울 때 나에게 이야기하라 했지만 “대통령,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해도 수억만 리에서 듣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전우들에게 “나 좀 살려 달라.” 해도 전우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나와 부분대장, 이렇게 둘이 시체 수색을 나갔습니다. 그 전날 사격을 했었는데 얼마나 죽었나 하고 시체를 수색하러 갔다가 그 중에 살은 사람에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도 아주 긴밀하게, 최대한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갔었는데 숨은 놈한테 내가 먼저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적이 쏘는 그 시간에 1초도 더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 이상의 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애인도 아무도 못 돕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생명의 보호를 주시고 기쁘게 해줍니다. 사람이 죽을 때 살려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늘까지 닿는 기쁨입니다. 여자가 수만 명이 따라다녀도 그렇게 안 기쁠까. 죽을 때 살아났을 때 제일 기쁜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어도 죽음에서 산 것만큼은 안 기쁠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살기만 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산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제일 기쁠까.

여러분들 죽음에서 산 기쁨을 겪어봤습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은 생명에 대한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너 살려줄 게, 너 있는 것 다 내놔!” 하면 살려고 다 줍니다. “죽여라. 나 그냥 간다.” 그러면 자기 것이 못 됩니다. 살게 되면 다시 시작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느 때는 적들에게 하나도 없이 다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살았으니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축복해주니까 많이 얻어집니다. 다른 데로는 그렇게 빨리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제일 빨리 얻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제일 빨리 얻어지고 제일 빨리 복직됩니다. 수백 배, 수천 배를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365일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해야 365일 동안 일한 만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는 것은 마치 어떤 시골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시골 이장의 일을 봐줬더니 이장이 자기가 남의 일을 한 것보다 배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깨닫고 임금님께 충성했습니다. 계속

농사지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임금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한 5년 동안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임금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 내 옆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잘 하면 “평생 나를 섬기며 기뻐하며 살아라.” 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농사 안 짓고, 장사 안 하고, 남의 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해주면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내가 물건을 어디에 놓고 오면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 늘 따라다녔습니다. 나이가 30대, 40대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 위험한 곳에 가면 “아이고 여기 위험한 데 건너서는 안됩니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주 그것만 전담하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전담하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일을 하다보면 다른 생각하다가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생각을 미처 못하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은 운전하다가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내를 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주라고 했으니 늘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보이니까 그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붙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내가 무엇을 사려고 나갔습니다. 아래 포켓에 150만원을 넣고 갔습니다. 꼭 무엇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섭리사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섭리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놓으려고 사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있었습니다. 밤에 불빛이 켜졌을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 때가 3월달쯤 되었습니다. 약간 춥기도 하고 포켓에 돈이 들어 있어서 손을 넣기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뭔가 내 손이 안 갔는데 내 포켓에 손길이 왔다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쳐다보니까 요만한 남자가 긴 핀셋 같은 것을 가지고 내 포켓에 넣었다가 돈을 끄집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있어서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리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늘 보호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이 녀석이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야 임

마!” 하고 소리질렀더니 흘끔 쳐다보면서 자기가 아니라는 듯 하며 갔습니다.

‘야, 진짜 낮에 내 코까지 베어먹을 놈이구나. 베어먹고 씹으면서 “야 임마 내 코 왜 베어먹냐?” 하면 전혀 모르는 체하고 갈 놈이구나. 세상에 저놈의 새끼 봐.’

짐승 같아도 소리치면 도망칠 텐데 도망도 안 쳤습니다. ‘대단한 놈이구나. 저놈 아주 전문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보호해주던 사람을 보고 “방금 누가 내 포켓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거 못 봤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르다니.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뭐하냐?”

그는 나보다 1미터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며 보호한다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나는 못 봤습니다.” 했습니다. “저 녀석이다.” 했더니 그냥 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니 혼내줘야지 왜 놔두고 그냥 가냐? 저놈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건드리면 성질들이 있어서 서로 안 좋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저걸 쫓아가? 정말로 그냥...”

그들은 쓰리 하는 기구를 가지고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쓰리 할 때 꺼내서 딱 물려서 끄집어냅니다. 그래놓고 왜 돈 가져가냐고 하면 “내가 갖고 갔냐? 내 손이 아니지 않냐. 이 쇠가 가지고 가지 않았냐. 내 손에서 쇠가 나와서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럴 놈이었습니다.

그때 뜨끔해서 ‘아 이거 잃어버렸으면 큰일날 뻔했네.’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창 그랬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습니다. “에이, 나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가 보다. 나를 왜 안 보호해주시냐... 가라지, 나쁜 악인들한테서 나를 좀 보호해주지. 하나님은 바늘귀만큼만 보호해줘도 딱 찌르면 괜찮은데.” 그랬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고, 집 지키는 조은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 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괜히 내가 중얼거려서 오늘 탕감 받고 왔다.’ 하며 집에 와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너를 보호할 자는 옆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호한다. 그

것 내가 보호해서 되었지 봐두면 맨날 떼인다. 너도 떼이고 옆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 그들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다.”

돈 떼이는 것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세 분만 내가 절대 의지합니다. 사람이 보호한 것은 없었습니다. 내 옆에 보호하는 사람이 절대 못 보호했습니다.

그때 당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안 보호한다고 소리를 꺾꺾 지르면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바깥에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기에 민망하다고 하면서 바람이나 쐬고 온다고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고 하늘 앞에 타닥타닥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갔다 오고서 내가 겪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나를 깨우쳐줬습니다. 스스로 깨닫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자는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절대 지키신다. 그 돈 든 것까지도 다 지키신다.”

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니까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보호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 이 돈 가지고 가니까 늘 지켜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넣고 다니라고 하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자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옆에서 보호해주는 사람도 다가 아니다. 극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옛적부터 그렇게 알았지만 그 날은 또 내가 하늘 앞에 안 지켜준다고 의안 좋게 심정 모르게 타작타작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날 “오늘은 공부 못해. 나도 심정 상해.” 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를 나가게 만들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와서는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의 상하는 일을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또 본 병이 언제 도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안 보호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다 지켜줍니다! 이왕이면 더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지켜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쁘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고 물질도 무엇도 보호해줍니다. 결국 근원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금을 냈습니까? 지켜달라고 다달이 바친 것이 있습니까? 꼭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나와 같이 그러하다고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한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자!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리라.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즐기듯이 이리 같은 사람들과도 너희들이 같이 함께 먹고 즐기게 해주리라. 소처럼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고 짐을 먹을 것이다. 뱀들이 흙을 먹고 살게 만들어 주리라. 사람을 물고 살지 않게 하리라. 나를 믿고 사는 동산에 해뱀이 없게 해주리라.” 했습니다. 섭리의 진리를 듣는 모든 세계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핵적인 세계에 해뱀이 없게 해주리라 한 것입니다. 성지 땅 월명동에서 뱀 물려 상한 사람이 없지요? 그곳에 그렇게 뱀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돌아다녔는데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잡은 뱀이 400-500마리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독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물렸습니다.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뱀을 하루종일 잡으러 다녔으나 못 잡고 그늘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에이 이제 뱀을 다 잡았다. 하나님, 뱀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두 다리 뻗겠다. 맨날 선생님이 뱀을 잡으라고 해서 맨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루종일 다녔어도 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이 물으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몇 명을 세워놓고 성지땅의 뱀을 다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다녔어도 뱀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물으면 “하루종일 다녀도 뱀이 없습니다.” 하려고 7월달에 연못의 왜솔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 있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니까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들고 있더라입니다. 손을 뒤로 제쳤어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 때 반 텅굴다시피하고서 후닥닥 일어나 5미터 도망갔다가 다시 가서 보니까 큰 독사가 탁 쳐다보고 있더라입니다. 그 놈을 잡았다고 나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누가 지켰냐? 니가 지켰냐? 네 형제가 지켰냐? 엄마 아버지가 지켰냐? 역시 지킬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또 지켜주셨

다. 네가 뱀 잡느라고 수고한다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 때부터 다시금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하루에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역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려면 앞으로 1시간 2시간 또 해야 됩니다. 다윗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모세를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악인들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살면 죽을 고비에서 지켜주십니다. 계속 지키다가도 계속 악하게 살면 안 지키십니다. 대개 하나님은 지키다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주고 계속 그러면 안 지켜줍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손해보고 바로 해를 받게 됩니다. 각종 태풍과 지진과 여러 고통으로 해를 받습니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이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의 심정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격할 줄 모르면 안 지켜 줘버립니다.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당해 버립니다.

오늘도 뉴스를 좀 봤는데 미국에 정말로 무서운 태풍, 허리케인이 스쳤습니다. ‘리타’라는 태풍이 일어났었는데 ‘월마’라는 태풍이 또 온다고 걱정들을 땅이 꺼지게 하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오면 사람이 죽고 경제가 손해깁니다. 그러면 또 전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고 경제 불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줄 수 있습니다. ‘리타’가 올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미국의 내 제자들이 있는 지역은 겨우 전도해서 한 30명 만들어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사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으려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안 오게 할 수 없냐고 하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태풍아 물러가라. 깨져라. 없어져라. 태풍의 눈이 다 빠져 없어져라.” 했는데 지금은 또 ‘월마’라는 태풍이 올 예정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마’라는 태풍은 미국을 지나갈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거리를 줍니다. 개인 가정 민족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냐? 시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을 따라 가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같이 따라 가고 같이 할 때 기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죄를 회개하라. 의인이 되라. 시대를 좇아 행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나와 같이 이상세계를 누리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달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못하지요? 오늘 말씀했으니까 시대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나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 배 만 배 십만 배 잘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백 배만 잘돼도 좋지 않습니까. 천 배만 잘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때보다 천 배만 잘 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주니까 믿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 오늘 여기서 각오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가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녀와서 좋으면 다닌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좋으니까 25년 동안 역사를 펴며 세계를 누비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되었으니까 믿겠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했지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일만 남았습니다. 범사에 계속 그렇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 기쁘게 하고 몸으로 기쁘게 하고, 감사하다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하며 가야 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따라 오면서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는 1년 2년 신앙생활을 할수록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고 좇아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100배 200배 300배 500배 1000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러면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네무룩 하게 하고 있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겠다. 나도 좋아하며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자꾸 그렇게 하며 좇아 다녀야 하나님도 역사를 합니다. 아무리 큰 전지전능한 자라 해도 자기를 사랑한다 하고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나고 하며 좇아 다니면 신경이 쓰이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나 나름대로 신이 준 운명대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멀어지다가 흑암의 세계로 가고 어둠의 세계로 가고 지옥이라는 무서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주 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자기 애인보다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 어떤 부모보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언제부터 효과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표가 납니다. ‘오늘 사랑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물망에 올라서 새로운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그만큼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지옥에 갈 것을 천국에 가게 못합니다. 부모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매듭짓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을 하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불만이 많으시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봐 주신단다.”

우리는 이미 알고서 20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쁘게,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게 좋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연속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또 전할 것입니다. 모레 새벽에도 전하고 글피에는 수요일 밤에 전할 것이니까 그 때 또 종합적으로 멋진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서 여러분으로 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축복 받고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와서 때우면 됩니다. 몸도 못 때우고 가만히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돈으로 안 때우고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돈으로 때워서 안됩니다. 돈 가지고 녹아질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에 녹아질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라는 것입니다. 몸 가지고 일해 줄 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임금님, 저는 오늘 춤추고 노래해야 하는데 바쁘니까 딴 사람을 데려다가 춤추게 하세요. 하루 품삯이 10만원이니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으로 춤추게 하세요.” 하면 “이 놈아 내가 와서 춤추고 노래해. 그러면 내가 100배 1000배 더 기뻐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몸으로 때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돈을 주면서 “하나님, 나 현금 냈으니까 나에게 잘 해줘요.” 그런 것은 잘 안 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전에는 바보처럼 헌금을 못 낸다고 맨날 쭈글치고 앉아 있고, 나는 할 일을 못한다고 복도 못 받는다고 맨날 그랬습니다.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흔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겪어봤더니 그 때도 ‘나 헌금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니까 제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며 춤을 추며 각종각색으로 기쁘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야, 너 지금 가만있어? 노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 가만있어? 전도해야지. 너 가만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야지. 사랑할 것이 없으면 사랑할 것을 찾아봐. 그리고 왜 가만히 있어? 형제들과 화동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왜 가만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강림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적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 있는데 제자들이 우르르 와 있으면서 저희들끼리만 놀고 나를 심심하게 놔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깨부수고 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네끼리 서로 좋아하고, 민족이고 단체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자기네끼리만 어울리고 지들끼리만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꼴을 안 보시고 쳐다보면서 바로 날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냐고요? 공중분해 시키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대로 착수됩니다. 그 기간은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바로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가지고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해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하자!!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내일 새벽에 하고 계속 한 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와 축도까지 해주고 끝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도 해주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손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심했어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너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선생님, 나 사랑하겠어요! 나 정말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한다니 전도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기쁜 것입니다.

“선생님 기뻐요?”

“미치게 기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날 사랑해줘요.”

“알았어. 나도 사랑해줄게.”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기쁘게 하며 살자!!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처음 온 사람부터 오래 된 사람까지 모두 일으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해주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했습니다. 지도자들 모두 서로 서로 말씀을 더 보충해주고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우상, 물질의 우상,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벌이 극렬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을 찾고 영광을 돌리며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겪어봐도 나는 이들을 참 기쁘게 해주고 극진히 사랑하는데 이들은 나에 대한 사랑일 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극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서로 즐겁게 하라, 서로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오늘 부르시고 말씀했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모두 실천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을 살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주는 말씀을 은혜있게 실력있게 능력있게 해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지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고 걱정되게 하지 말고 염려되게도 하지 말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기쁘게 하면 주로 인해 받는 기쁨이 크고 이상도 크다 했습니다. 주를 걱정 끼치지 말고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걱정 끼치지 말고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드리고 바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서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쳐 하나님께 기쁘게 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내가 빈 평안이 온 민족과 세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이 빨랐습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은 다 빼내서 보면서 몇 번 읽어보고 통역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으니 선포하고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빨리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십니다.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했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타고서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은 이 때까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물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십니까?” 묻는데 그것에 대답한다면 내가 멍청하고 바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대답하겠습니까. 한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계속 맛있는 음식만 가지고 오고, 미역국 좋아한다고 하면 미역국만 사다 나르려고 합니까? 그래서 대답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지 모두 기쁘게 해 보라, 노래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이지 가지 잘 해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시인이지만 시를 써봤는데 “이 시가 무슨 시이지요?” 그러면 대답 안 해줍니다. 예수님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어떤 나쁜 녀석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하면 그 시는 너무 좋습니다. “가라지 나쁜 놈을 두고 묘사하며 쓴 것이다” 하면 너무 좋습니다. “누구를 두고 한 지 모른다. 너도 말 안 들으면 너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골고루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누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저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다 하고 대답을 해주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괜히 나만 혼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
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섭리사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흔히 내 일을 해준다고 하면서 걱정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는데 만일 안 한다면 그들로 걱정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이 바이 안녕~